



한국나눔연맹·무주증기협회, 이웃사랑 실천

무주군에 연 초를 맞아 성금과 성품행렬이 이어졌다. 4일 한국나눔연맹과 무주군 증기협회는 라면 500박스(환가액 1천5백만 원)와 성금 1백만 원을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무주군에 각각 기탁했다. 한국나눔연맹 안미란 이사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일정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정성과 힘을 보탤다"며 "이웃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기탁 배경을 설명했다. 무주군 증기협회 신상욱 회장은 "지역사회 온정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작은 정성과 사랑을 전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인홍 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무주군은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부량면 11개 사회단체, 행복나눔 쌀 3240kg 기부

김제시 부량면(면장 진영환)은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11개 사회단체가 연말연시 행복나눔 쌀모으기 행사를 통해 모은 쌀 3,240kg을 5일까지 관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183세대와 경로당, 마을회관 27개소에 전달했다. 부량면 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4주간 '행복나눔 쌀모으기' 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특히 전라북도내 이상 한파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들이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취지로 실시할 바 마음을 모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사회단체회원들은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여 쌀을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혹한기 난방상태를 확인하는 등 생활실태도 꼼꼼히 살폈다. 진영환 부량면장은 "참여한 사회단체회원들께 감사드리며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들의 기부를 통해 관내 어르신들과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참 감사하며 계묘년 새해부터 훈훈한 소식을 시작으로 더불어 나누는 행복한 부량면이 되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행동하는 청년 신뢰받는 임실C'

임실청년회의소, 신년하례회 개최... 임실군 발전기원·덕담 인사 등 진행

임실청년회의소(회장 한상민)가 계묘년 신년하례회를 지난 3일 임실농협 본점에서 개최했다. 신년하례회는 새해를 맞아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상견례 자리를 통하여 임실군민의 안녕과 임실군의 발전을 기원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임실청년회의소 회장의 새해 인사말과 주요 내빈들의 축사, 새해 각오와 다짐 결의를 위한 케이크 절단식에 이어 박길수 애양운동본부장의 덕담 인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상민 회장은 "올 한 해 본 회의소는 '행동하는 청년 신뢰받는 임실C'라는 슬로건 아래 임실 지역 청년들의 중심점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봉사활동 등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심민 군수는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사회·경제적 고통과 함께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여러 사건·사고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며 "우리 군정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실치즈축제에 52만 명이 목정호 출렁다리에는 45만 명이 다녀가며 관광 산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가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정읍시 연지동 제12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식 가져

정읍시 연지동 제12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3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2년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기존 위원 18명, 신규 위원 7명 등 총 25명의 위원이 선정됐다. 임원직에는 허중성 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연임 위촉됐으며, 감사에는 박광에 위원과 황점순 위원이 위촉됐다.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무, 재무 등은 추후 회의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관한 검토, 의견조율 등에 참여하고, 주민자치 기능 역할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허중성 위원장은 "위원장에 연임한 만큼 연지동에 봉사하



는 마음으로 동민의 화합과 단결에 앞장서고, 주민과 행정의 가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김제 검산동 생활개선회, 성금 100만원 기탁

김제시 검산동 생활개선회(회장 정수옥)는 4일 따뜻한 사랑나눔을 이어가고자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원교)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된 성금은 지난해 지평선축제 음식부스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전라북도 사회복지공

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검산동 생활개선회는 지평선축제, 농업인의 날 등 크고 작은 지역 내 행사와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의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옷칠 목공예 동호회 '옷사랑', 남원시에 성금 기탁

남원시는 4일 옷칠 목공예 동호회 '옷사랑'에서 224만5천 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남원시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희망2023 나눔캠페인'은 계묘년 새해에도 나눔으로 희망찬 남원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계속되고 있다. 이번 옷사랑에서 기부한 성금은 옷칠·같이 수료식 및 전 시회에서 옷사랑 회원 협찬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정두 남원목공예협회장은 "경기불황에 날झे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옷사랑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성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620-633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상록골프장, 남원시에 성금 200만원 기탁

희망2023 나눔캠페인을 맞아 남원시에 사랑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원상록골프장이 이웃돕기 성금 2백 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남원상록골프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자회사이며, 남부권 대표 골프장으로 공무원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체력단련 시설이다. 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물품 및 성금 기탁을 통해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황서중 남원상록골프장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골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소방서, 겨울철 심폐소생술 중요성 강조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4일 겨울철 심·뇌혈관질환과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혈관이 급속도로 수축되면 혈액 농도가 짙어져 봄가을에 비해 심장질환 발병률도 높아진다. 이렇듯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심폐소생술 방법은 (1단계) 환자 의식 및 호흡확인 (2단계) 119신고 및 도움 요청 (3단계) 구급차 도착시까지 가슴 압박 실시이다. 가슴압박시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손가락을 낀 두 손을 올리고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때 압박깊이는 성인 5cm, 소아 4cm 깊이로,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심폐소생술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응급처치술이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9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